순창군, 아동행복수당 확대한다

1~17세 모든 아동 매달 10만원 지원… 내달 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예고

순창군이 내년부터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에 대해 제한 없이 아동행복수당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아동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아동행복수당은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정적으로 수당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연령대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일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했으며, 구체적으로 1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매달 10만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중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뿐만 아니라 조손 가구나 한부모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 1명당 매달 10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으로도 평가된다.

실제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며, 젊은 세대의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아동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지역에 젊은 가족들을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확대 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형형색색 코스모스로 물든 임실

임실천변 ·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 치즈테마파크 일대 만개

국화꽃이 만발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가운데 임실군 전역에 형형색색의 코스모스가 피어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임실읍을 가로지르는 대표 하천인 임실천에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코스모스가 기지개를 켜고 만개해 새파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 주민들과 임실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다.

군은 임실천 1.1km의 구간에 봄에는 꽃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곽곽한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아름다운 산책로를 제공, 오고 가는 사람들의 포토존이 되고 있다.

코스모스 식재로 끝나지 않고 솎아주기, 제초 작업 등 꾸준한 유지관리 작업을 하며 관리해 왔다.

또한 임실천 산책로를 따라 목수국 등 관목류와 꽃범의꼬리 등 다년생 초화류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코스모스는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9월 중순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분홍색, 하얀색 등 형형색색의 꽃으로 만개해 화려한 모습을 더하고 있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입구에 있는 요산공원 일대도 조성된 코스모스가 만개하면서, 국화꽃, 구절초와 더불어 색다른 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요산공원 내 조성된 국화 꽃길을 걷다 보면 보물처럼 숨겨진 코스모스 꽃밭이 나온다.

군은 약 600평 일대에 조성된 코스모스 꽃밭이 만개하며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코스모스 단지 곳곳에 포토존을 마련했다.

특히, 이 코스모스 꽃밭은 옥정호와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조성되어 울긋불긋 형형색색의 꽃이 옥정호의 윤슬과 어우러지며 청명한 하늘과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 도로변 왕복 2.8km 구간과 치즈마을 인근에도 코스모스 꽃밭이 조성되어 있어, 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군은 임실천과 치즈테마파크, 치즈마을, 옥정호 요산공원을 비롯한 임실군 곳곳에 피어난 코스모스가 지역주민들에겐 즐거운 산책길을, 관광객들에게는 가을꽃 향연에 사진을 찍는데 더없는 아름다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임실천변 등에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어서 가족과 이웃, 친구, 연인과 함께 걷고 사진을 찍으며 마음에 여유를 느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 등 주요 관광지 곳곳에서 가을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만큼, 많이들 찾아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서명운동 10만명 돌파

지역 발전 염원 시민들 자발적 참여로 이룬 성과

남원시가 신임 경찰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남원시가 신임 경찰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9월 23일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0만6,460명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단결과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룬 성과라고 전했다.

서명운동은 사회단체(남원시 애향본부, 이통장협의회, 운봉애향회 등)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시에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원시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염원 서명운동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확보

남원시는 2025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비 8억7천2백만원을 확보하고 6개 지구, 16개 마을, 4,336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남원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65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8개지구, 126개 마을, 3만4,000여 필지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의 국가예산 감소 추세에도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년 대비 1억1,800만원(24%)이 증액된 전국 2위 규모의 8억7,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금동 도랑지구, 수지면 호곡지구, 대강면 대강1지구, 사매면 사매2지구, 산동면 부절지구, 이백면 서곡지구로, 실시계획 수립 후 30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는 한편, 사업의 목적 및 절차 설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구 지정 요건인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임실호국원-전주소년원, 1사1묘역 협약 체결

국가보훈부 국립임실호국원(원장 김상우)은 전주소년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소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임실호국원 6.25참전군인 320묘역(161위)를 결연묘역으로 지정받아 국립묘지 묘소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사회견학, 개방처우, 국립묘지 참배 등 호국원 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올바른 인성 함양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국립임실호국원은 2017년 전북개발공사와 국립묘지 1사1묘역 가꾸기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총 15개 기관으로 이루어졌다.

김상우 원장은 "국립임실호국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곳으로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정신과 고귀한 가치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식품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순창군이 15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식품제조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평가 대상은 HACCP 적용업체를 제외한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체이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규모·종업원 수 등 기본조사 △서류평가 △제품관리 및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을 평가해 2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들은 자율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연말까지 농업법인 462개소 실태조사 실시

순창군이 12월 말까지 관내 462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농업법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 등 설립요건 충족 여부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및 장기 휴업 여부 등이 포함된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나 현장 출입 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사전 통지 후 진행되며, 조사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 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법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